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집단간 위해도 인식 차이  
- 일반인, 전문가, 공무원, 사회단체, 언론인 중심으로 -

신동천, 임영욱<sup>1</sup>, 박종연<sup>2</sup>, 황만식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서남대학교 환경보건학과<sup>1</sup>,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sup>2</sup>

포스트 발표 초록

위해도 인식(risk perception)에 관한 연구는 사회 구성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 여론 형성 방식을 파악할 수 있고, 위해 요인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Golding et al, 1992; Slovic et al, 1982). 특히 이러한 연구는 위해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인식 주체의 사회적 위치나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외국의 경우 환경문제에서 비롯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해 관리가 정부의 정책과 대중들의 논쟁, 대중매체의 관심, 학계의 연구 등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어오면서, 초기에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논쟁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판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환경문제들과 오염물질의 심각도와 중요도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 집단의 인식 차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환경 위해 관리 및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전문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위해도 인식과 더불어 현재 주된 환경문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한 선행 연구(신동천 등, 1999a; 1999b)를 기반으로 연구대상을 더욱 확장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사회 집단간의 위해도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집단을 일반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사회단체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간 환경문제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인식의 정도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지식, 환경문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건강에 영향이 있었던 경험, 환경문제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감소할 수 있는 정도를 보는 위해 감소성을 조사하여 위해도 인식의 차이점과 관련 요인 및 각 범주에 따른 세부적인 환경 위해성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주요한 환경 문제들에 대하여 사회집단간의 위해도 인식 및 26개의 위해 항목을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도출함과 동시에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도출된 환경문제의 세부 항목에 관하여 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상태에 관하여 만족하지 않았으며, 공무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 문제에 대하여 각 집단에서는 정부의 개선 노력도 부족하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루어 볼 때 그동안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환경 정책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시민단체들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도와 인지정도는 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위해 특징들의 세부 항목의 우선순위와는 다르게 집단간 환경 문제 세부항목에 대한 지식 정도는 순위로 보았을 경우 차이가 있었다. 환경문제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하여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에 따른 감소정도에 관하여 각 집단에서는 기업체가 환경관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전체 항목에 대한 위해 감소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약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각 집단에서 환경 및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위해들은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로 감소하기 쉬우며, 기술과학의 발전으로 야기된 전지구적인 위해들은 감소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집단간 위해를 인식하는 정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정책의 우선권을 세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들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의 위해도 인식을 조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집단이 우리 나라의 구성원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에 대해 사회집단간에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점과 이를 극복하고 어떤 합일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본다.